

東海市湫岩洞B地區古墳群의 埋葬과 副葬行爲

金宰賢

Kim, Jaehyun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基層構造講座 助手

1. 序論

東海市湫岩洞B地區古墳群에서는 20기의 遺構에서 遺物과 함께 53개체의 人骨이 출토되었다.(金宰賢 1994a) 이 중 橫口式石室 14기와 橫穴式石室 2 기의 대부분에서는 複數의 人骨이 검출되었으며, 이들 複數個體의 人骨들은 同時的 埋葬이 아닌 異時的 埋葬의 결과에 의한 追加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橫口式石室인 가 31호분의 경우에서는 異時的으로 매장되어진 이들 人骨과 함께, 遺構에서는 입구로 사용된 短壁에서 石室이 축조된 후 적어도 세차례이상의 追葬을 상정할 수 있는 분층이 확인되었다. 부장된 遺構들에 있어서도 토기의 형태와 유구내의 정리된 장소를 검토하여 다섯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선후 관계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人骨의 埋葬順序와 분층의 구분· 遺物의 副葬順序 등을 주장한 埋葬 Process의 복원을 시도하였다.(金宰賢 1994b, c) 여기서 가 31호분의 埋葬Process복원은 1기의 橫口式石室에서 이루어진 埋葬과 副葬行爲를¹⁾ 복원함으로써 이른바 追加葬이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선행의 論文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遺構에서 확인되는 複數個體의 人骨이 追葬의 결과라는 평가를 얻기까지는 人骨· 遺構· 遺物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²⁾ 또한 고고학에서 人骨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

1) 여기서 「埋葬」은 유구에 피장자를 묻는 것, 「副葬行爲」는 유구에 유물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2) 물론 유구· 유물만이 확인되는 고분에서도 追葬을 추정할 수 있는 예가 보고되고 있어, 설득력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으나, 일본에 있어서는 追葬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외에도 單體埋葬만이 확인되는 橫穴式이나 竪穴式墓에서도 葬送儀禮로서 飲食物供獻을 위해 再次 開口하여 土器供獻을 한 예도 있는 것(田中·村上 1994)에서 追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人骨調査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 고고학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殉葬에 대해, 殉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떠한 조건들이 요구되어지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후행하여 이제까지 殉葬資料로 사용되어 오던 사실들 중, 그들이 殉葬임을 증명하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모순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殉葬,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 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金宰賢 1997) 그러나 본고에서는 追加葬이 확인되는 秋岩洞B地區의 遺構들 중에서 人骨의 출토상태와 遺物의 출토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遺構들을 들어서 발굴보고자가 분류한 시기별로 어떻게 埋葬과 副葬行爲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복원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 고분군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遺構들이 埋葬과 副葬行爲에서 어떠한 시간축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며, 적어도 秋岩洞B地區에서 이루어진 埋葬儀禮를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埋葬과 副葬行爲에 관련한 研究

人骨을 遺物과 관련하여 연구한 고분관계의 논문은 주로 근간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人骨의 출토가 빈번한 외국에 비하여 먼저 人骨의 출토에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³⁾ 이러한 여건속에서 人骨과 遺物을 사용한 古墳研究로서는⁴⁾ 먼저 武末純一의 金海禮安里古墳群의 階層構造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논문에서 氏는 禮安里古墳群의 人骨을 副葬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報告書에서의 人骨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5세기에서 6세기중기의⁵⁾ 遺構를 중심으로 살피고 幼小兒와 成人의 차이가 槨制나 石槨·石室의 장축길이와 관련됨을 밝혔으며, 石槨·石室의 장축길이를 기준하여 A群과 B群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장품인 武器의 수를 A群과 B群으로 분리해 보았으며 각 A群과 B群을 性別로 분리하여 鐵器數도 살피고 있다. 결과 II기이후에 있어서는 新生·乳·幼兒는 甕棺, 幼小兒는 길이

3) 이러한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①崔夢龍, 1993, 『韓國考古學에 있어서 自然科學적 研究-人骨과 土器分析의 研究狀況과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13, 韓國上古史學會 p20. ②洪亨雨, 1994, 『고고학에 있어서 인골의 연구성과와 방향』 『韓國上古史學報』 17, 韓國上古史學會, p498.에서도 밝히고 있다.

4) 人骨의 분석결과를 사용한 연구로서는 殉葬과 관련한 논문들도 있으나, 金宰賢, 1997, 『韓國의 殉葬研究에 대한 檢討』 『文物研究』 창간호, (財)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5) 禮安里古墳群의 시기구분은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金海禮安里古墳群 I』을 참조하고 있으며, 구분은 IIa에서 IIIa에 걸치고 있다.

190cm이하의 石槨, 成人은 190cm을 넘는 石槨·石室에 매장되어지는 年齡別의 규제가 있는 점, 더욱이 成人에서는 남녀의 차가 보이지 않고 刀子·斧·鎌의 각 1점과 철촉수점을 기본으로 하여, 矛와 刀도 동반하는 A群(石槨·石室의 길이가 300cm미만)과 철기·토기의 양이 A群보다 월등하고 矛나 刀·大斧를 가지며 때로는 馬具·鐵鋌 등을 동반하는 B群(石槨·石室의 길이가 300cm이상)의 2群으로 階層이 分理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안리고분군을 보병 중심의 武人이 매장된 고분군으로 본 것에 대해⁶⁾, A群 대부분의 부장품은 武器가 아닌 農工具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氏가 이제까지 禮安里古墳群을 <中·小首長層의 古墳群>으로 본 것을 철회하고 있다. 그 이외 石槨의 길이가 190cm이상임에도 불구하고 幼小兒가 매장된 것에서는 社會的 成人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刀와 矛가 女性에서도 출토되는 점을 들어서 이들 遺物이 男女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土製紡錘車는 女性의 부장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武木純·1992) 이와같은 禮安里古墳群의 연구결과에 후속하여, 기존의 보고서(釜山大 1985, 1993)와 武木純·이 행한 재검토의 결과(武木純·1992)를 기초로 한 편년관에 예안리고분군의 4~5세기 피장자를 대상으로한 齒冠計測值를 작성하여 Q모드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血緣關係를 추정하고 小群의 구성원리에 대한 假設을 검토한 연구가 田中良之에 의해 이루어졌다.(田中良之 1996) 연구에서 먼저 개개 被葬者像의 검토를 위해서는 性別·年齡·出産經驗의 유무 등을 살펴, 親族關係와 承繼의 료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日本의 社會像과 비교하였다. 결과 群構造에서는 性別構成에서 실제로 생활하던 農民層의 전체가 매장된 것이 아니라, 특히 선택된 인물이 매장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선행하는 古墳을 파괴하는 행위는 先行墓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死者와 선행하는 死者와의 系譜關係를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Q모드상관계수에 의한 결과에서는 고분의 관계 등에서 얻어지는 계열이 血緣關係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또한 시기적으로 연속되는 8개의 系列은 世代的인 繼承으로 보고 男性에서 女性, 男性에서 男性, 女性에서 女性, 女性에서 男性이라는 계승패턴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에서 禮安里古墳群에서의 繼承은 父系도, 母系도 아닌 雙係承繼임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성격에서는 4세기전엽은 女性이, 중엽은 남 녀반반이, 4세기후엽에는 男性優位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5세기전·중엽은 고분의 수가 적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간 女性優位인데 대해 5세기후엽은 男

6) 門田誠·, 1998. 『古代伽耶の戰士』, 『考古學と技術』,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IV의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武木純·, 1992. P103-104를 참조.

은 氏가 내린 결론이외에, 자칫 無檢討的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부 遺物의 性別的 先入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氏가 遺物이나 遺構에서⁹⁾ 가져오던 기존의 先入觀을 격파하면서도,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氏의 논문에서도¹⁰⁾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개별 고분에 대한 성별을 새롭게 추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서 어디까지나 資料가 가지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인만큼, 이후의 研究가 기대된다.

발굴에서 출토된 人骨에 대해 人骨,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어온 것에서 人骨과 관련한 文化를 연구하려는 노력이 鄭尙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氏는 한 遺蹟을 대상으로한 人骨과 遺物比較의 첫시도라는 것을 밝히고, 氏 스스로가 造永 1A 地域의 人骨을 분석하여 出土遺物과 비교하고 있다. 결과 人骨分析에서 얻어진 人骨의 形質的 特徵과 함께 造永 1A 地域의 文化적 현상으로서 原三國時代의 遺構에서는 男性은 小刀와 따비가, 女性은 팔찌 등의 裝身具와 파배 등이 性差를 나타내는 遺物로 보았고, 三國時代의 遺構에서는 男性이 環頭大刀, 철촉, 금동제세한이식 등의 遺物을, 女性이 유자이기, 대호 등을 가진 것에서 性差를 나타내는 遺物로 보았다. 그 이외 三國時代의 遺構 중 男性의 遺構에서만 耳飾이 출토되는 것과 동일 봉토내의 異性에서는 男性이 남쪽 혹은 서쪽에, 女性이 북쪽 혹은 등쪽에 묻히는 것으로 결론하였다.(鄭尙洙 1994, 1996) 그러나 氏가 말하는 人骨과 遺物을 비교한 <첫시도> 운운¹¹⁾은 本稿에서도 알 수 있듯이 武末純一의 研究나, 田中良之 筆者의 研究를 파악하지 못한 失言으로 생각된다.¹²⁾ 또한 原三國時代나 三國時代에 性別差에 의한 遺物로 생각한 대부분의 것은 그 해당 遺物이 다만 異性의 遺構에서 출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외, 그렇다고 해서 同性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 출토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철촉·유자 이기는 男·女의 遺構 모두에서도 출토되는 사실 등이 氏의 논문에서도 엄연히 확인되는 것에서¹³⁾ 이들 遺物이 階層差를 보이고 있는 것을 性別差로 誤判한 것

9) 遺構에서 해석되어지는 견해에 대해서는 金善珠, 1994의 P25를 참조.

10) 金善珠, 1994의 P71.

11) 鄭尙洙, 1994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1996의 논문 P116에서 <한 遺蹟을 대상으로는 첫시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氏의 1994 논문과 1996 논문은 내용상 중복되므로 함께 정리한다. 다만 priority의 문제에서는 구분하여 기술한다.

12) 이들 논문이 완료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武末純一, 1992.(1992.8.18.완료) | ② 金宰賢, 1994b.(1994.8.22.완료) |
| ③ 金宰賢, 1994c.(1994.11.22.완료) | ④ 金善珠, 1994.(1994.11.30.완료) |
| ⑤ 鄭尙洙, 1994.(1994.4.12.완료) | ⑥ 田中良之, 1996.(1996.7.완료) |
| ⑦ 鄭尙洙, 1996.(1996.12.완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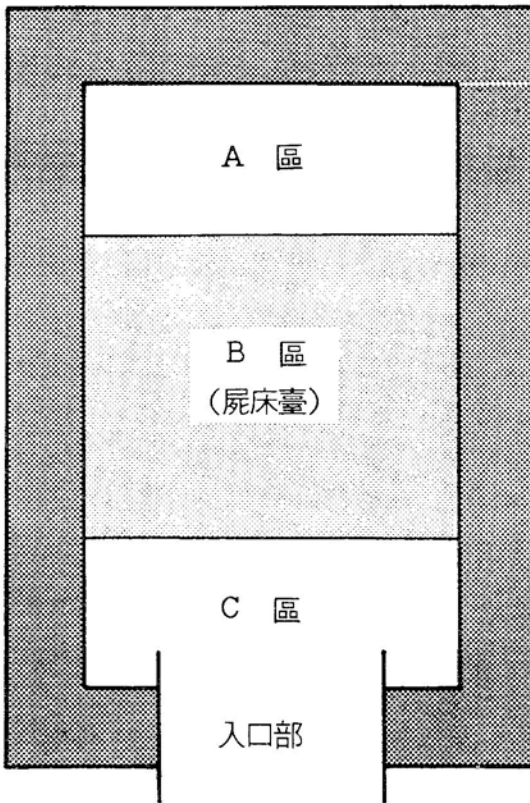
13) 鄭尙洙, 1996. P154-155의 표 3-1, 3-2 참조.

같다. 그리고 人骨의 研究에서는 氏가 말하는 殉葬者들이 死後에 埋葬되었는가 生埋葬되었는가를 밝히기에 앞서¹⁴⁾, 정말로 殉葬되었음이 먼저 증명되었어야 할 것이다.¹⁵⁾ 人骨 資料를 사용한 氏의 노력은 인정되어지나, 적어도 氏의 논문에 참고되어진 金善珠의 研究라도 충분히 파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외, 筆者의 先行研究는 序論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된다.

3. 資料의 선택과 研究方法

資料의 선택에 있어서는 湫岩洞B地區의 발굴을 담당한 李相洙의 시기구분에 기준하여(李相洙 1993), 각시기의 해당 遺構들 중에서 人骨과 遺物이 함께



圖面 1. 副葬行爲에 의한 구분(筆者作成)

14) 鄭尙洙, 1996. P143

15) 왜냐하면 殉葬이 먼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死後埋葬은 운운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埋葬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출토되는 遺構를 研究資料로 하였다. 결과 I기에서는 나·6호분, II기에서는 이미 연구된 가·31호분과 가·7호분, III기에서는 가·42·43호분을, IV기에서는 가·41호를 대상으로하여 埋葬과 副葬行爲를 살핀다. 그러나 가·41호분의 경우는 人骨이 출토되지 않은 유구여서 인접하는 III기의 가·40호분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먼저 人骨의 埋葬順序를 추정하고 다음으로는 遺構에서의 遺物 副葬位置를 확인하여 이들 遺物들의 先後關係를 기존의 편년연구에 준하여 검토하여서, 湫岩洞B地區에서 추정되는 埋葬儀禮를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副葬位置의 구분에서는 橫口式·橫穴式墓制의 屍床臺를 중심으로 입구부에서 먼 副葬間을 A區, 屍床臺를 B區, 입구부 가까이에 위치한 副葬間을 C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土器의 출토위치는 기호로써 표시한다. 圖面 11 그리고 각 유물의 출토위치에서 확인되는 번호는 각 유물에 붙여진 일련번호와 동일시 하였다. 埋葬順序에 대한 추정은 이미 보고된 人骨의 출토상태와 性別·年齡結果를 사용하므로 이들 내용은 보고서에서 참고한다.

4. 埋葬과 副葬行爲의 검토

(1) 나·6호분의 경우

·埋葬: 橫口式石室에서 레벨차를 달리하여 人骨이 확인되었다. 검출된 人骨 모두 5個體로서 A區에 토기들과 함께 集骨되어진 3개체와, B區에서 확인되는 1개체, 床面을 성토한 후 매장한 1개체이다. 여기서 A區에 集骨된 A·B·D 人骨은 각 개체의 중복관계에서 A→B→D호 人骨의 순서로 정리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호 人骨과 E호 人骨의 先後關係는 床面に 위치한 C호 人骨이 선행하여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서 A→B→D→C→E호 人骨의 순서로 매장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人骨의 性別과 年齡의 추정에서 成年男性-成年女性-成年男性-成年初半男性-成人男性의 순서로 매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호 人骨은 下肢骨이 거의 본래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에서 완전한 腐蝕이 이루어지지 못한 짧은 시기에 E호 人骨을 매장하였기 때문에 床面을 약 15cm 진흙으로 높힌 뒤 追葬을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集骨된 D호 人骨과 被葬狀態를 유지하는 C호 人骨은 그 埋葬間隔을 10년으로 보았을 때, D호 人骨이 30대에 매장되었을 경우 C는 10대, 20대에 매장되었을 경우 C

16) 金宰賢, 1994a.

17) 人骨이 白骨化되는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田中良之, 1995의 p63~70에 의한 것이다.

는 乳·幼兒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副葬行爲 : 유물은 A區와 C區에서 집중하여 출토하였다.(圖面 2) 이들 유물은 床面에 위치하는 것으로, 특히 A區의 토기는 A·B·D호 人骨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2) 가-31 호분의 경우

·埋葬 : 橫口式 石室의 입구부에서 확인되어지는 4단계의 어깨선과 人骨의 출토상태에서 C·D·E·F→A→B호 人骨의 埋葬順序를 상정하여 예상되는 모델의 D·F→C·E→A→B호 人骨과, E→C·D·F→A→B호 人骨, E·D·F→C→A→B호 人骨의 예를 구하여 검토하였다.¹⁸⁾ 즉 이것은 成年男性·成年後半女性→成人男性·熟年男性→熟年男性→熟年男性이거나, 熟年男性→成人男性·成年男性·成年後半女性→熟年男性→熟年男性, 또는 熟年男性·成年男性·成年後半女性→成人男性→熟年男性→熟年男性의 순서로 매장된것으로 추정하였다.

·副葬行爲 : 유물은 A區와 C區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부가 C區에 가까운 B區에서 출토된다.(圖面 3) 이들 토기의 선후관계는 선행의 연구에서 추정되어지고 있다.¹⁹⁾

(3) 가-7 호분의 경우

·埋葬 : 橫口式 石室에서 集骨된 1개체와 被葬時의 상태를 유지하는 1개체가 확인되었다. B호→A호 人骨의 순으로 매장된 것으로 A호 人骨은 成年女性, B호 人骨은 不明(成人)이어서 不明→成年女性의 매장이 추정된다.

·副葬行爲 : 토기는 A區와 C區에서 출토된다.(圖面 4) 그외 단경호 1점과 방추차 2점은 B區에서 확인된다.

(4) 가-42 호분의 경우

·埋葬 : 橫口式 石室에서 1개체의 成人男性 人骨이 확인되었다. 이 人骨은 下肢骨만이 유존하는 것이지만, 埋葬時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最終被葬者로 추정된다.

18) 金宰賢, 1994b, p215 참조.

19) 金宰賢, 1994b, p213~215.

· 副葬行爲 : 유물은 A區의 1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C區에 위치하고 있다.(圖面 5) 황구식임에도 불구하고 1개체의 人骨만이 확인되는 것과 이 人骨이 集骨된 것이 아닌 점에서 적어도 C區의 유물과 관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가-43 호분의 경우

· 埋葬 : 橫口式石室에서 2개체의 人骨이 B호→A호 人骨의 순으로 매장된 것이어서 成年男性→成年女性의 매장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成年男性은 출토상태에서 완전히 骨化가 이루어진 이후에 成年女性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것은 B호人骨이 정리되어진 다음, A호人骨이 매장된 것이어서 이들의 시간간격이 적어도 10년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B가 30대에 매장되었다면 A는 20代, B가 20대에 매장되었다면 A는 10代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 副葬行爲 : 유물은 A區와 C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圖面 6) 더욱이 도면 6의 7번 蓋는 B호人骨의 上腕骨 밑에 위치하는 것에서 B호人骨과 관련한 유물로 추정된다. 蓋는 A區에서 유두형손잡이가, C區에서 유두형과 꼭지형손잡이가 확인된다.

(6) 가-40 호분의 경우

· 埋葬 : 橫口式墓制에서 4개체의 人骨이 확인된 것으로 A→B→C→D호 人骨의 순서로 매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서 확인된 연령과 성별에서 成年男性→不明→老年女性→成人男性의 순으로 追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集骨되어진 A호 人骨을 제외한 B·C·D호人骨은 下肢骨이 겹쳐지는 것에서 이들 人骨이 완전히 骨化되지 못한 짧은 시간에 追葬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集骨된 A호人骨과 B호人骨사이를 10년으로 가정하고 B호人骨과 C호人骨, C호人骨과 D호人骨사이의 시간간격을 각각 10년 미만으로 상정한다면 가-40 호분은, 빠르게는 30년 이내에 埋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副葬行爲 : 유물은 C區에 위치하는 1점 외에는 전부가 A區에 위치하고 있다.(圖面 7)

(7) 가-41 호분의 경우

· 埋葬 : 人骨은 유존하지 않는다.

· 副葬行爲 : 유물은 竪穴式石槨의 남서단벽 가까이에서 확인된다.(圖面 8)

5. 綜合考察

李榘洙의 구분 I기인 나6 호분은 A區와 C區에서 공통적으로 각부중앙에 돌대를 가지는 二段의 方形透窓高杯인 圖面 2의 14번, 1번, 2번, 5번, 6번 토기가 확인된다. 그러나 A區의 9번토기는 杯部에 문양을 가지는 장방형의 二段透窓高杯로 梁山 夫婦塚의 II에²⁰⁾ 해당한다. 이것은 李盛周의 土器編年 IV-1(李盛周, 1994), 金龍星의 土器編年 III-3b(金龍星, 1996), 李熙濬의 土器編年 IIIa(李熙濬, 1997)에 해당하는 토기들과 동일한 것이고, A區 11번인 一段長方形透窓高杯는 朴升圭의 III단계 IIIb B2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朴升圭, 1990) C區의 고배가 李盛周의 IV-2, 金龍星의 III-3c 이후, 李熙濬의 IIIb에 해당하는 사실과 비교할 때, 각 氏가 가지는 編年問題는 접어두더라도 編年에 사용되어진 土器들의 先後關係는 각 氏 모두가 동일하므로 A區가 C區보다는 다소 이른시기의 土器가 위치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A區의 土器들은 集骨되어진 A호·B호·D호 人骨과 관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最初 被葬者에 해당되는 A호·B호 人骨은 A區의 서측에 위치하는데 대해 대체로 이른시기의 토기로 보이는 9, 10, 11번 토기는 동측에, D호 人骨이 동측에 위치하는 데 대해 C區의 토기와 같은 형태인 14, 15, 16, 17번은 서측에 위치하여, 人骨과 유물이 상호 대칭하면서 정리되어졌을 가능성이 추정되어진다. 이것은 발굴에서 동측의 토기위에 D호 人骨이 일부 놓여진 상태로 검출된 것에 비해, 서측의 人骨과 토기는 그와 같은 상태를 보이지 않은 것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C區 유물은 最終被葬者인 E호나 C호 人骨과 관련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물이 床面に 위치하고 있어서 오히려 C호 人骨과 관련할 가능성이 크다.

II기의 가-31 호분은 선행의 연구에서²¹⁾ A區의 토기가 B區·C區에 위치한 토기들 보다 이른시기로 보았다. 그것은 圖面 3의 A區 4, 5번 高杯가 나6 호분의 C區와 같은 형태의 것인 점과, B區에서 보이는 一段長方形透窓高杯가 朴升圭의 IV단계 IIIb B2에 해당하는 것, C區에서 21번의 보주형손잡이 蓋가 확인되는 점에서 이다. 그러므로 가-31 호분에서는 集骨되어진 C호·D호·E호·F호 人骨이 A區 유물과, B·C區의 유물이 最終埋葬者인 B호 人骨이나, 그 앞

20) 沈奉謙, 1991. p150~153.

21) 金宰賢, ① 1994b. p213~217. ② 1994c. p125~129.

시기의 A호 人骨과 관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7 호분은 같은 II기에 분류된 가-31 호분보다는 圖面 4의 A區 高杯들이 발달한 구연부턱과 외반하는 각부끝의 형태 등에서 李盛周의 V-1, 金龍星의 IV-1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一段長方形透窓高杯가 朴升圭의 III단계 IIIb B2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C區 14번 高杯는 각부가 짧아지는 형태여서 李盛周의 V-2에 해당되므로 A區가 C區보다 이른 토기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A區 유물은 B호 人骨과, C區 유물은 A호 人骨과 관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기의 가-43 호분 유물은 圖面 6의 A區와 C區 토기 모두가 이른바 短脚高杯를 부장한 것으로 李盛周의 V-2 기에서 통일후기양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短脚高杯가 金宰賢의 구분 B I b(金宰賢, 1991)에 해당되는 점, 蓋는 環狀 손잡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가야계 특징인 유두형 손잡이와 꼭지형 손잡이가 확인되는 점에서 이른바 통일 양식으로 불려지는 환상형·단추형·보주형 손잡이에 인화문을 가지는 金宰賢의 B I c, B II a, B II b의 短脚高杯보다는 이른시기로 추정된다. 또한 人骨과의 관계에서는 7번 蓋가 B호 人骨 밑에 위치하는 것에서 A區 유물을 B호 人骨과 관련시키고, C區 유물은 A호 人骨과 관련하는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가 42 호분은 유존하는 1개체의 人骨이 埋葬時의 狀態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혹, 현재는 유존하지 않는 集骨이 있었다 하더라도 圖面 5의 C區에 근접한 유물은 이 遺存人骨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가-43 호분 B區에 위치한 유대장경호(圖面 6, 12번)보다 늦은 형태인 유단구연장경호(圖面 5, 15번) 및 유개대부완(圖面 5, 3번) 등이 확인되는 것에서, 같은 III기에서도 가 43 호분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 43 호분이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40 호분도 A區와 C區에 토기가 부장되고 있다. A區의 短脚高杯(圖面 7, 6번)는 金宰賢의 B I a에 해당하지만 꼭지형손잡이의 蓋와 함께 유대장경호도 확인되므로 가-43 호분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A區는 보주형손잡이의 蓋와 함께 구연부가 내만하여 「역자」에 가까운 蓋(圖面 7, 9번)도 확인되며 단경호(圖面 7, 5번)가 C區의 단경호(圖面 7, 12번)와 거의같은 형태여서 A區가 C區보다 이른시기라는 근거는 희박해진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유구들이 A區가 C區보다 다소 이른시기로 보여지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人骨埋葬에서 보이는 특성과 관련한 것일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추정은 불가능하다.

22) B호 人骨은 集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人骨 밑에 위치한 유물은 人骨이 集骨되기전에 이미 부장된 것임은 알 수 있다.

IV기는 가-41 호분으로 유구에서 확인되는 短脚高杯는 金宰賢의 B1b와 B1a에 해당하는 것이고 圖面 8의 4번은 蓋와 高杯의 구연부가 발달한 것이어서 가 41 호분이 가-40 호분보다 후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상에서 湫岩洞B地區의 I기에서 IV기에 걸친 유구들 중, 선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먼저 한 유구에서 이루어진 埋葬과 副葬行爲를 살폈다. 결과 人骨에서는 각 유구에서 埋葬順序를 추정하였고 나-6호분에서는 集骨된 D호人骨과 埋葬時의 狀態를 유지하는 C호人骨에서의 埋葬間隔을 추정하여, 이들 追葬은 적어도 二世代 이상의 構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이미 田中良之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방법으로(田中良之, 1995), 물론 人骨出土段階에서부터 충분한 관찰과 검토가 수반된 후의 것인 만큼, 氏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人骨의 年齡推定이나 埋葬間隔의 추정은 대체적인 것이어서 엄밀한 年齡構成의 복원은 본래 어려우나, 대략적이거나 생각되어지는 시간폭 중에서 얼마간의 예를 고려한다면 同世代인가, 次世代인가를 판단해서 세대구성을 복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²³⁾ 湫岩洞B地區에서 二世代이상의 구성이 추정되어지는 것으로는, 자료로 사용되어진 유구들 외에 가-3 호분과 가-11 호분을 들 수 있다. 가-3 호분은 A→B→C호人骨의 순서로 매장된 것인데, 老年男性→成年女性→不明으로 老年男性인 A가 매장될 때, B는 20대이거나 10대로 추정되어져 二世代가 된다. 가-11 호분은 C→B→A의 순으로 集骨된 것인데, 熟年女性→成年初女性→成年初女性이어서 熟年女性인 C가 매장될 때, B와 A가 이후 동시에 集骨된 관계라면 같은 10대로 추정되며, B와 A가 埋葬間隔을 가진다면 B는 10대, A는 乳·幼兒로 추정되어져, C호人骨과 B·A호人骨은 二世代, B와 A는 同世代로 추정되어진다. 그리고 埋葬順序에서는 만약 最初被葬者가 繼承을 반영한다고 추정하였을 때, 나-6호분, 가-31호분, 가-43호분, 가-40호분 모두가 男性을 最初被葬者로 하고 있어서 혹 父系繼承의 社會로 추정할지도 모르나, 湫岩洞B地區의 가-9호분의 埋葬順序는 成年女性→成年後半男性→熟年男性이며, 가-11 호분도 熟年女性→成年初女性→成年初女性, 가-16호분도 成年後半女性→成年後半女性→成年不明이었고, 가-21 호분은 成年女性이 靑銅冠을 부장한 것에서 오히려 雙系的 繼承²⁴⁾을 보이는 社會일 가능성이 추정되어진다. 물론 父

23) 田中良之, 1995, p71~72

24) 여기서 雙系는 bilateral 또는 bilateral system을 의미하는 것으로 選系를 의미하는 ambilineal과 兩系를 의미하는 bilineal과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田中良之(金宰賢 譯), 1996, p77~84에서의 「양계」는 雙系의 뜻을 밝힌다. 이 「雙系」라는 용어는 韓相福의, 1997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이후 다른 용어와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系繼承이 완전히 확립된 사회에서 男性의 배후자인 女性이 먼저 사망한 경우도 最初被葬者는 女性이 될 수 있으나 가 11 호분과 가 16 호분은 계속 女性이 매장되고 있으며, 특히 가 11 호분은 二世代에 걸쳐 女性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父系繼承의 社會로 단정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4·5세기의 金海豐安里古墳 社會가 雙系的社會이며 血緣親族組織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한 인물이 그 세대에 선택되어 매장되고, 親子繼承이나 夫婦埋葬을 기본으로 하지않는 社會이며, 呪術·儀禮的 側面이 중시된 社會로 추정한 研究와²⁵⁾ 6세기말에서 7세기에 해당하는 金海柳下里 傳 王陵에서는 男性이 확인되지 않고 女性 5개체와 어린이 4개체만이 검출되고 있는 것에서(金宰賢, 1996) 繼承問題는 차후 계속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遺物の 副葬行爲에서는 각 시기별로 구분된 遺構를 임의로 A區·B區·C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결과 각 區에 위치하는 토기들이 기존의 연구성과인 土器編年에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A區의 유물이 B·C區의 유물보다 다소 이른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시기의 늦은 단계인 C區는 다음 시기의 이른 단계인 A區의 遺物과 같은 시간대에 나열되어짐이 상정되어, 각 시기의 遺構가 李相珠의 編年區分에서처럼 분절되는 것이 아니고, 겹쳐지는 시간축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이것은 이들 遺構가 埋葬間隔을 가지면서 複數被葬者를 追葬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한 遺構에서 複數被葬者의 追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遺物도 副葬間隔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區의 遺物이 B·C區의 遺物보다 이른 것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다른 古墳群에서도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같은 古墳群의 가 40 호분에서도 예외가 보이는 것에서, 이후 人骨과 遺物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檢討·考察하고자 한다.

6. 結論

본고에서는 韓國의 古墳出土 人骨과 遺物을 資料로 한 研究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研究들이 모색한 방법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先後研究를 살펴본 것이다. 人骨에서는 한 遺構에서 埋葬順序를 살피고, 複數個體에서는 二世代이상의 埋葬을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湫岩洞B地區에서 확인되는 最初被葬者의 性別이 男性이나 女性,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실에서 雙系的 性

25) 田中良之, 1996. p70.

格을 띠는 社會일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副葬行爲에서는 湫岩洞B地區 古墳의 경우는 A區가 특히 C區보다 이른 형태를 보이는 것과, 선행하는 시기의 遺構 C區는 다음시기의 遺構 A區遺物과 형태상 병행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文中敬稱略)

謝 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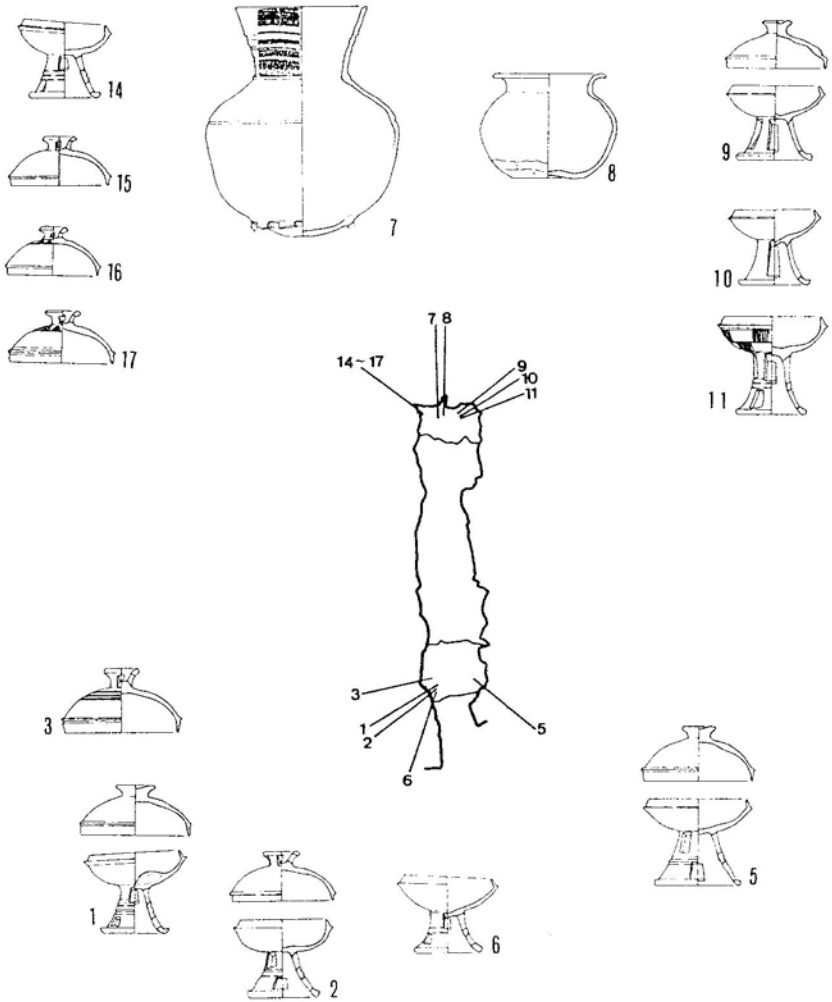
紙面을 허락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沈奉謙선생님을 비롯한 李蘭暎선생님, 鄭孝雲선생님, 朴廣春선생님, 朴銀卿선생님과 본고의 작성과정에서 조언과 지적을 해주신 田中良之선생님, 構口孝司선생님, 中橋孝博선생님, 武末純一선생님, 村上久和씨, 高久健二씨에게 감사드린다. 원고교정과 내용을 검토해 토론에 응해 준 崔鐘赫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관동대학교 辛虎雄선생님과 李相洙선생님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동아시아문물연구소의 여러분과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科 基層構造講座 大學院生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參考文獻

- 金善珠, 1994. 『新羅 積石木槨墳 被葬者の 性別 問題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 金龍星, 199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韓國考古學會.
- 金宰賢, 1991. 「伽倻故地出土 短脚高杯에 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7. 韓國上古史學會.
- 1994a. 「古墳群 出土人骨(1)」 『東海北坪工團造成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關東大學校博物館.
- 1994b. 「韓國東海市湫岩洞古墳群의 埋葬プロセス -B地區KA-31 號墳の場合」 『古文化談叢』 33. 古文化研究會.
- 1994c. 「東海市湫岩洞B地區 古墳群의 埋葬例」 『石堂論叢』 20. 東亞大學校.
1996. 「金海柳下里 傳 王陵 出土人骨」 『東義史學』 9·10 合集. 東義大學校史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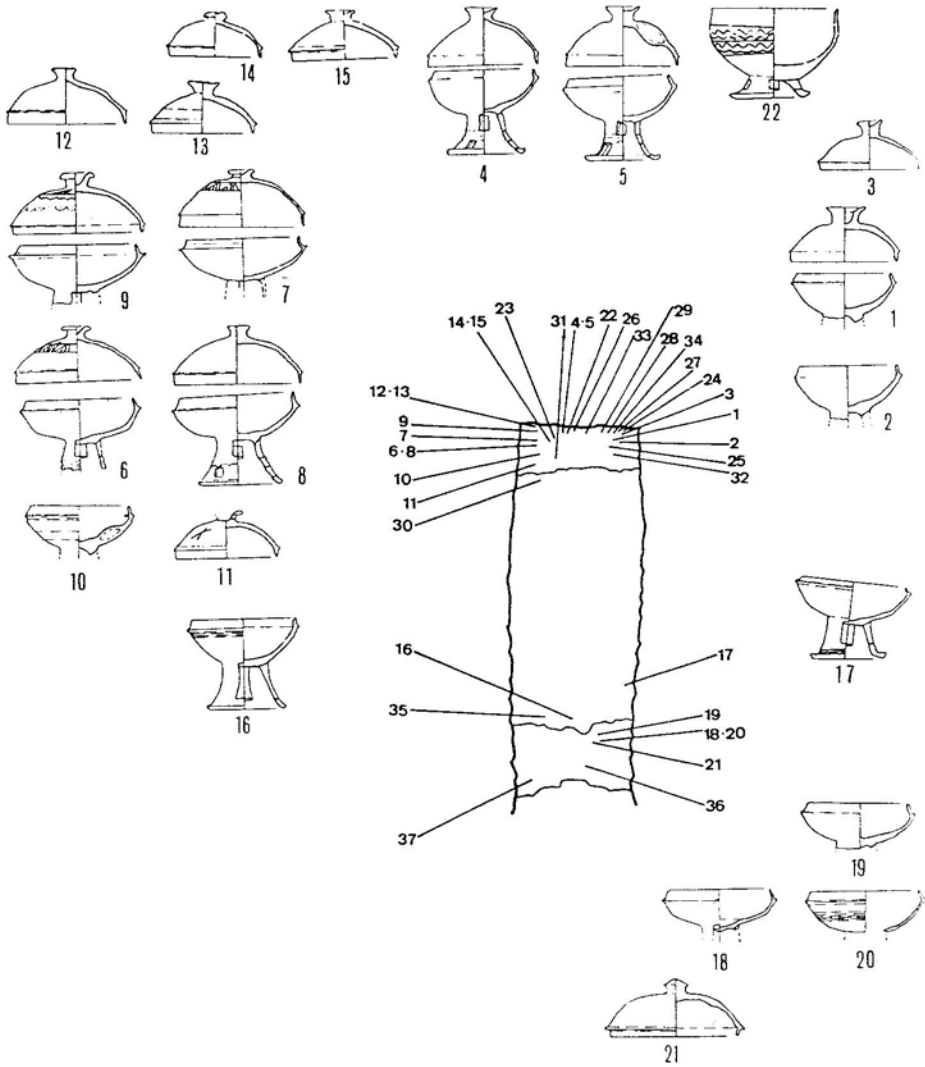
1997. 「韓國의 殉葬研究에 대한 檢討」 『文物研究』 창간호, (財)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 朴升圭, 1990. 『一段長方形透窓高杯에 대한 考察』 東義大學校人學院碩士學位論文.
- 沈奉龍, 1991. 『梁山金烏塚·夫婦塚』 東亞大學校博物館.
- 李相洙, 1993. 『嶺東地方의 新羅古墳研究 -北坪地域 古墳을 中心으로-』 關東大學校人學院碩士學位論文.
- 李盛周, 1993. 「낙동강동안양식토기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 李熙濬, 1997. 「토기에 의한 新羅 고분의 分期와 評年」 『韓國考古學報』 36. 韓國考古學會.
- 鄭尙洙, 1994. 『慶山 林堂古墳群 造永 1A地域 出土人骨에 대한 一考察』 嶺南大學校人學院碩士學位論文.
1996. 「경산지역 고분 출토 인골의 분석 -조영 1A 지역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23. 韓國上古史學會.
- 崔夢龍, 1993. 「韓國考古學에 있어서 自然科學적 研究 -人骨과 土器分析의 研究狀況과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13. 韓國上古史學會.
- 韓相福·李文雄·金光億, 1997. 『文化人類學概論』 서울대학교출판부.
- 洪亨雨, 1994. 「고고학에 있어서 인골의 연구성과와 방향」 『韓國上古史學報』 17. 韓國上古史學會.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金海禮安里古墳群Ⅰ』.
1993. 『金海禮安里古墳群Ⅱ』.
- 關東大學校博物館, 1994. 『東海北坪工團造成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 石川榮吉 他, 1987. 『文化人類學事典』 弘文堂.
- 門田誠一, 1988. 「古代伽倻의 戰士」 『考古學と技術』,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 IV.
- 武末純一, 1992. 「韓國禮安里古墳群의 階層構造」 『古文化談叢』 28. 古文化研究會.
- 田中良之·村上久利, 1994. 『墓室內飲食物供獻と死의 認定』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9. 九州大學文學部九州文化史研究施設.
- 田中良之, 1995. 『古墳時代親族構造의 研究-人骨가 語る 古代社會-』 柏書房.
- 田中良之, 1996. 「埋葬人骨による日韓古墳時代의 比較」 『4·5세기 한일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2회 합동고고학대회.

田中良之(金宰賢譯), 1996. 「매장인골에 의한 일한고분시대 비교」 『4·5세기 한
일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2회 합동고고학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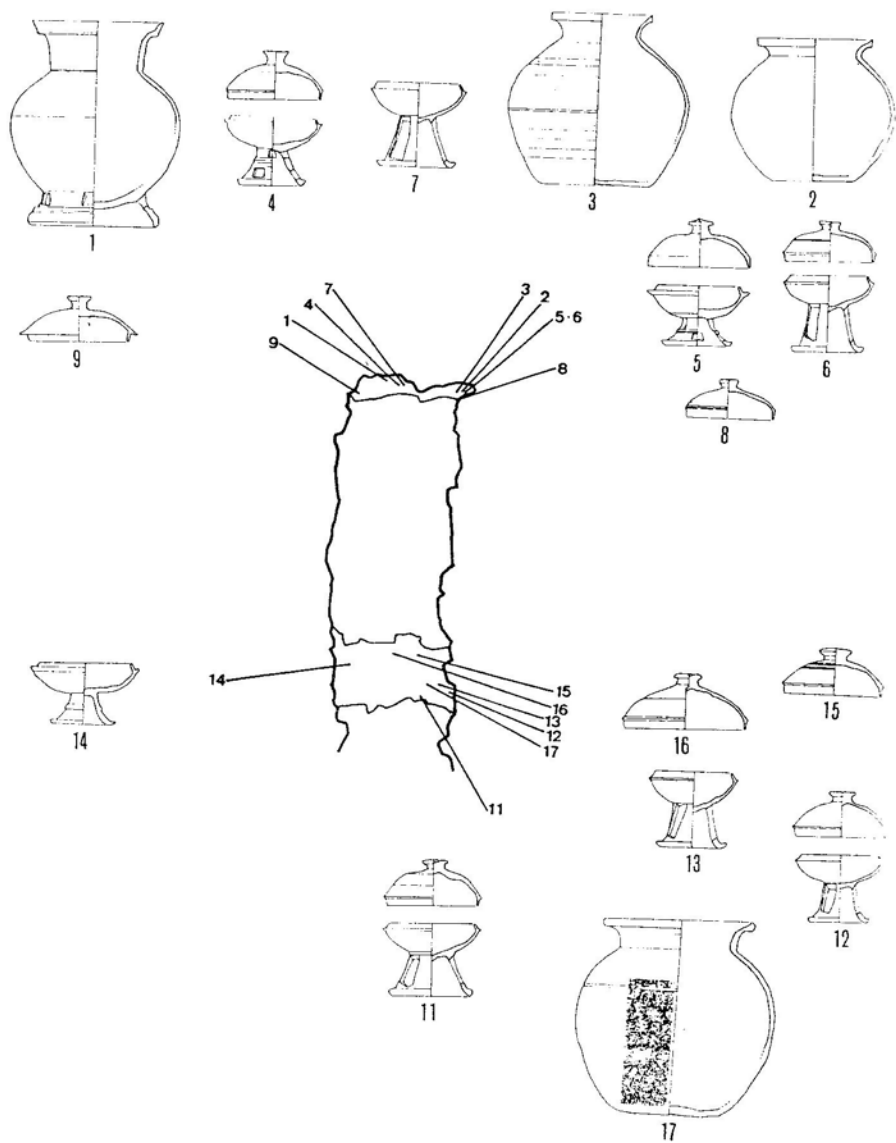


圖面 2. 나·6호분의 유물출토위치(關東大, 1994. 改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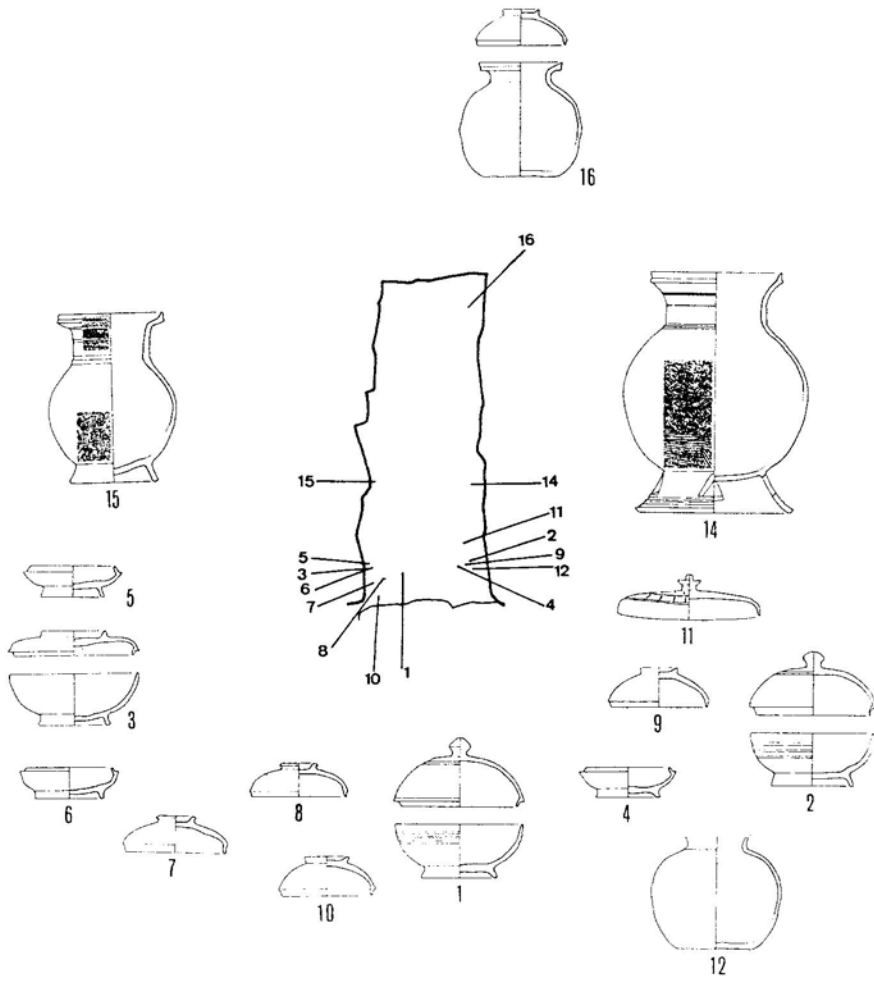
*전도면의 土器 비율은 동일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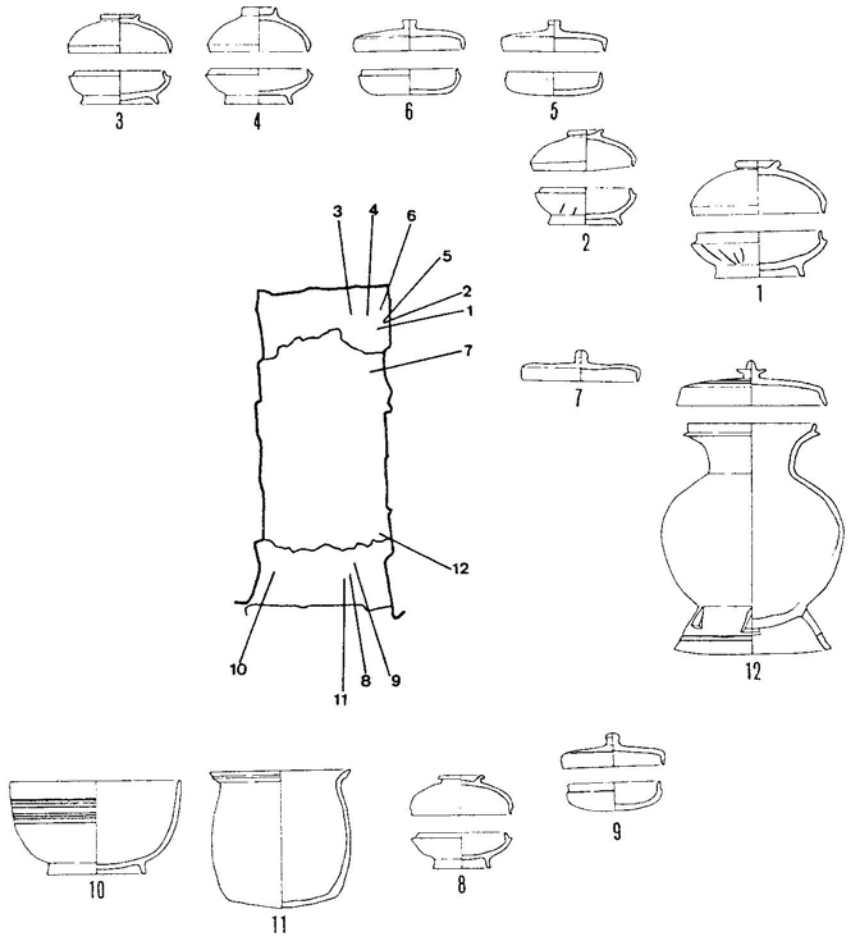
圖面 3. 가-31호분의 유물출토위치(金宰賢, 1994b. 改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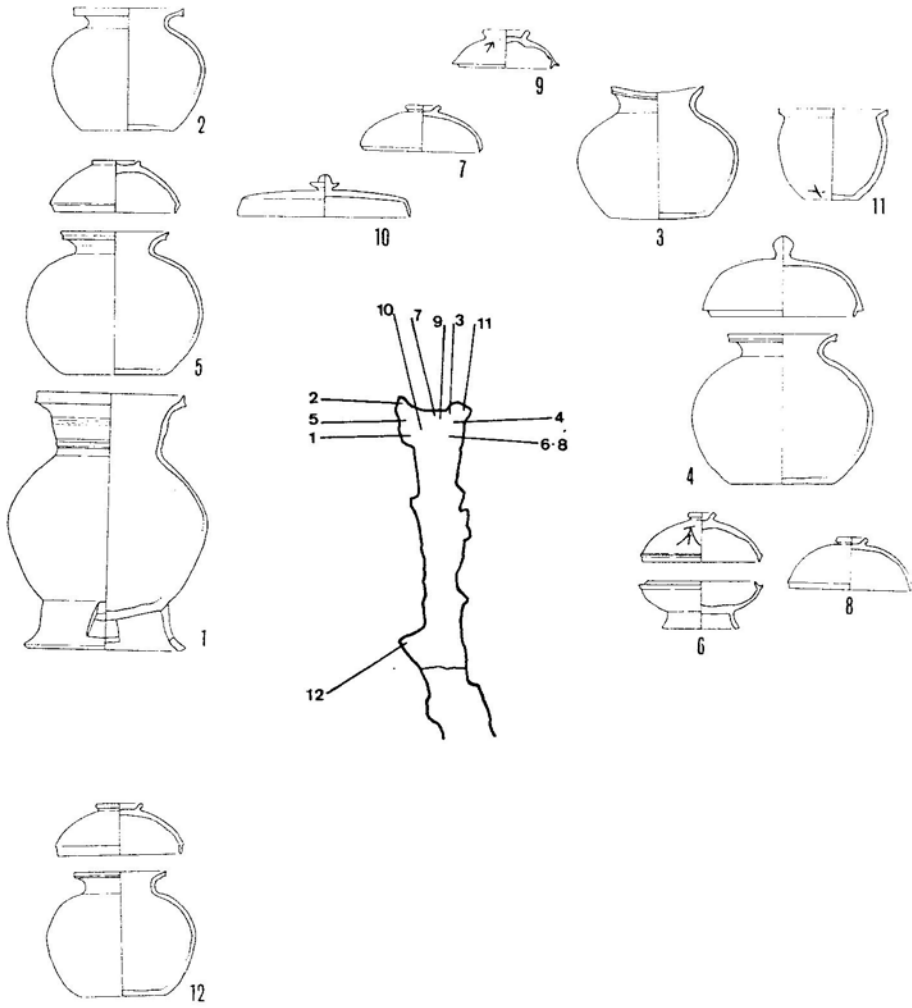
圖面 4. 가-7호분의 유물출토위치(關東大, 1994. 改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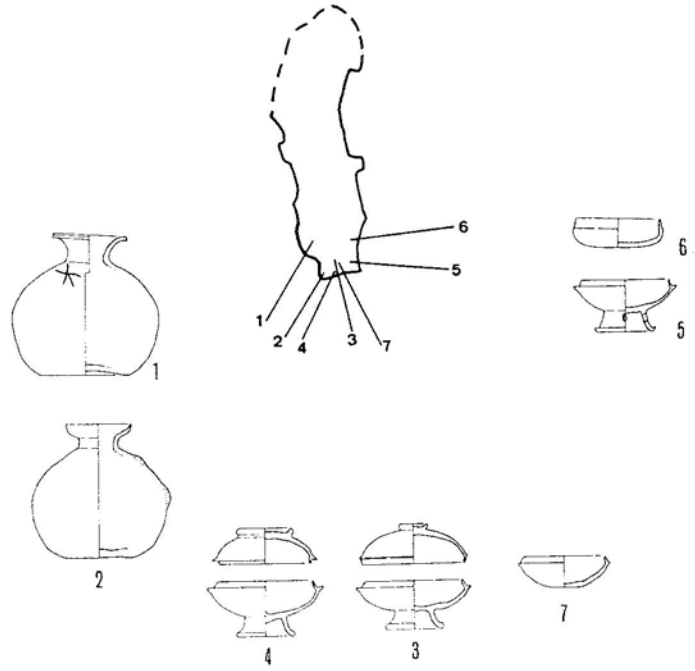
圖面 5. 가-42호분의 유물출토위치(關東大, 1994. 改變)



圖面 6. 가-43호분의 유물출토위치(關東大, 1994. 改變)



圖面 7. 가-40호분의 유물출토위치(關東大, 1994. 改變)



圖面 8. 가-41호분의 유물출토위치(關東大, 1994. 改變)